

##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김경환 주무관 선정

-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유류 약 35만 리터 적발

관세청은 6월 12일(금)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경환 주무관은 관세청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우범 선박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심야 시간대 선박의 특이한 움직임을 포착·추적하여 화물탱크에 보관 중이던 불법 유통 목적의 해상 면세유 약 35만 리터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해상 면세유 특별단속 실시(26.3.16.~4.30)

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

우범 이산화물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통해 모의총포, 실탄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을 6차례 연이어 적발한 인천세관 한재일 주무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반도체 공정용 반제품 수입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고가 희귀금속 스크랩(금속 폐기물)을 해외 업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수입 가격을 할인 받고, 실제지급금액보다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여 32억 원 상당의 세원을 확보한 부산세관 김규완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마약류 밀수입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던 중 증거인멸을 시도한 피의자를 몸싸움 끝에 긴급 체포하고, 주거지 수색을 통해 마약류를 추가 확보하여 LSD 210장, 대마초 등을 밀수입한 피의자를 검거·송치한 인천공항세관 이승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전 정보 없이 고도의 엑스레이(X-RAY) 판독 기법만으로 국제 우편물 속에 은닉한 마약류를 총 10여 차례(7,145g) 적발하여 국정 단계에서의 마약류 반입 차단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김민정 주무관을 ‘마약단속 분야’ 유공자로,

출국 취소 후 재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적용 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 세관 최초로 관련 내규를 제정하고 절차 및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한 인천공항세관 문옥진 주무관을 ‘현안대응 분야’ 유공자로,

\*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3항 :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적용('26.2.27.)

항공 여행자의 국적, 출발지 등을 자체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정밀한 엑스레이(X-RAY) 판독을 통해 우범 여행자가 캐리어 바닥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총 5kg가량을 적발하여 대규모 마약 유통 차단에 기여한 김해공항세관 조나리, 정진혁 주무관을 ‘권역내 세관’ 유공자로 선정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마약 단속, 물가 안정, 공정과세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며,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정과제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우수 직원에게는 파격적인 보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행정관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병진 (042-481-7670)
		담당자	사무관	이명종 (042-481-7715)

